



‘소정과 금강산’전에 참석한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홍라희 삼성미술관장(왼쪽부터)이 최광진 삼성미술관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춘식 기자

‘小亭과 금강산’展 개막

실경 산수화의 정수... 호암갤러리서

4월11일까지 전시

한국적 정취를 살린 실경산수화로 우리 산수화의 새 지평을 연 소정(小亭) 변관식(卞寬植)의 탄생 1백주년을 기념하는 ‘소정과 금강산’전이 11일 오후 4시 호암갤러리에서 막을 올렸다. <관계기사 36면>

이 전시에는 ‘외금강 삼선암 추색’ ‘내금강 단발령’ ‘내금강 진주담’ 등 주로 50~60년대에 화폭에 옮겼던 금강산 절경 20여 점과 청전 이상범·심산 노수현·묵로 이용우 등 ‘동연사’(同研社)동인들의 작품 12점을 포함, 총 50여 점이 소개된다.

이 자리에는 신낙균(申樂均) 문화부장관, 정의숙(鄭義淑)이화여대이사장, 정양모(鄭良謨)

국립중앙박물관장, 박석원(朴石元)한국미술협회이사장, 이경성(李慶成)석남문화재단 이사장, 권이혁(權彝赫)성균관대 이사장, 정진숙(鄭鎭肅)을유문화사회회장, 강진구(姜晉求)삼성전기회장, 이종남(李種南)법무법인 세종 대표, 클라우드 블러스 주한 독일대사, 예발트 예거 주한 오스트리아대사, 홍라희(洪羅喜)삼성미술관장,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 등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다. 전시는 4월 11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3월 13일 오후 2시 호암아트홀에서는 유홍준 영남대 교수가 ‘소정과 금강산’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기선민 기자

<murphy@joongang.co.kr>